

第四卷 第三號 通卷三十二號

江華傳燈寺所在宋·崇明寺鐘에 對하여

金 庠 基

이 鐘은 典型的인 中國의 것으로서 全高가 五尺四寸이오(이 가운데에 龍頭의 高가 一尺) 肚徑은 上部가 九尺七寸·胴部가 十尺八寸·下部가 十一尺九寸五分이며 口徑이 三尺三寸인 자못 아담한 梵鐘이다. 龍頭에 는 音管이 없으며 兩龍이 左右로 등을 지고 웅크려서 꼭지를 이루고 있으나 磨泐이甚하여 線이 매우 鈍化해졌으며 鐘頭언저리에는 優雅한 十六個의 蓮瓣이 둘러 있다. 肩帶에는 九個의 梅花文花瓣이 새겨져 있고 肩帶와 腰帶사이의 間地에는 八卦가 둘러 있으며 胴部에는 數條의 腰帶가 둘러 있는데 위아래에는 凸線으로서 많은 四角形이 劃定되어 있다. 그리고 이 腰帶의 上下部에는 兩 八卦에 應하여 八面의 廓과 廓사이에는 各各 縱線으로 區劃된 二行의 長方形의 間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廓內와 間地에는 銘文이 새겨져 있다. 鐘身下部는 넓은 素文帶를 둘러고 그 안에는 四個의 撞座가 새겨져 있으며 鐘口는 八稜의 波狀을 이루어 넓은 素帶로 둘러 있다. (鐘口의 두께는 二寸五分)

이 鐘은 形態가 매우 莊重하고 龍頭와 蓮瓣等 彫刻은 자못 精練된 手法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리도 또한 清雅하다. 이 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唯一한 中國의 古鐘으로 開城·演福寺鐘과 아울러 宋元時代 中國式 梵鐘의 形態와 手法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 傳燈寺의 宋鐘과 演福寺鐘사이에는 形態와 手法이 또한 서로 類似하다. 元來 演福寺鐘은 高麗忠穆王 二年에 (西紀一三四六) 元나라 匠人을 시켜 鑄造한 것이거나 이와 이제이 兩鐘을 대충 比較해 보면 演福寺鐘은 口帶와 波文刻帶사이의 間地에 八卦가 둘러 있으나 傳燈寺의 宋鐘은 肩帶와 腰帶사이의 間地에 八卦가 羅列되어 있는 것이 서로 다른 點이며 其他 龍頭와 八稜의 波狀 鐘口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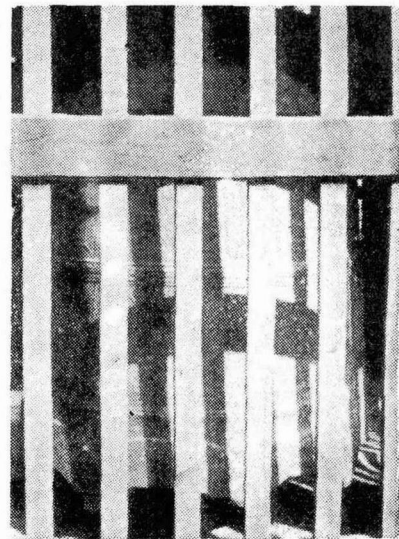
은 서로 彷彿한 모습 을 지니고 있어 演福寺鐘은 이 傳燈寺 宋鐘의 系統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傳燈寺宋鐘의 銘文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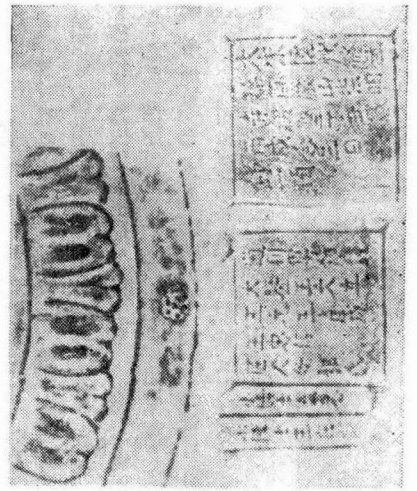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胴部 上下에 區劃 되어있는 各 八面의

廓內와 그 사이에 마련된 間地에는 凸鑄의 銘이 들어 있으며 字形은 매우 古拙하여 一層 古樸味를 풍기고 있다. 그런데 이 銘文은 많이 磨泐 되어 約 半分の 面이 겨우 判讀할 수 있는 程度로서 매우 遺憾된 일인 것이다. 이 銘文은 대개 施主人 및 董役者 匠人等의 氏名이 凸鑄되어 있는 바 이 가운데에는 다행히도 鑄鐘의 地方 寺名 및 年代等이 들어있는 廓面의 文字가 比較的 잘 남아 있다. 그리고 宋代의 行政區域名으로서의 軍(通利軍)의 名稱이 二·三군데 보인다. 大保長이라 하여 地方行政의 末稍 機構인 「保」가 보이는가 하면 鑄鐘의 董役인 鑄鐘大監의 稱과 또 小博士의 稱도 나타나는데 바 이는 宋代 地方制度에 關한 滋味스러운 史料이기도 한 것이다. 이 鐘의 鑄造地 寺名 및 年代에 關하여 살펴보면 前述 胴部下段 八面中의 한 廓內에

大宋懷州修武  
縣百巖山崇明  
寺紹聖丁丑歲  
丙戌念三日鑄  
鐘一顆



라한 것이 보인다. 이에 依하여 이 鐘은 懷州(後世 河南省의 懷慶府)修武縣(지금도 縣名이 變치 아니하였음) 百巖山의 崇明寺에서 北宋 哲宗



紹聖四年(丁丑)高麗 肅宗二年 西紀一〇九七) 丙戌月(月建)로 달을 表示한 듯한 바 戌月은 九月에 該當한 것이 다. 그런데 지금 月 建推定法으로 보면 同年 九月은 丙戌이 아니라 庚戌인 바

시 庚戌로 誤記한 것이 아닌가 싶다) 二十(念)三日에 鑄造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이는 演福寺鐘에 比하면 約二百五十年이 앞선 것이다. 그리고 이 銘文에 보이는 百巖山에 關하여 살펴보면 顧祖禹의 讀史方輿紀要卷四九 河南四 懷慶府 修武縣條 天門山註에 縣西北四十里 諸山唯此最低 故名天門 其巖下 可容百家亦名百家巖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이 百巖山의 百巖은 百家巖의 略稱인 듯하며 따라서 百巖山이 곧 지금의 天門山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宋鐘의 傳來에 關하여 傳燈寺 住持 및 江華人士의 말에 依하면 日政末期에 敗戰에 뒤떨어진 日人들이 供出이라는 名目아래에서 金屬器具類까지 收奪하여 갈 때 우리의 貴重한 文化財가 수없이 被奪되었거니와 傳燈寺鐘도 그 때에 빼앗겼다. 뒤이어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에 解放이 되자 傳燈寺側에서는 그 빼앗긴 鐘을 찾으러 富平 軍器廠으로 갔던 바 마침 이 鐘을 그곳에서 發見하고 마침내 옮겨다 놓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日帝末期에 侵略主義日本은 所謂 支那事變을 일으켜 華北華中에서 많은 文化財를 掠奪하여 그들의 本國으로 가져갈 때에 이 鐘은 아마 艦船으로 仁川에 실어다 놓은 것을 金屬不足으로 허덕이던 그들 無識輩가 普通 梵鐘으로 알고 이 鐘을 富平軍器廠으로 다시 옮겨다 놓은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어쨌든 이 鐘은 銷禍를 免하고 傳燈寺로 옮겨져 保存케 된 것은 實로 奇蹟의인 喜幸事로서 말하자면 이 鐘은 千年의 神

物인 만큼 역시 神·佛의 守護를 받은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번 江華島 文化財實態調査에 있어 特別히 梵鐘의 實測과 榻印에 수 고해준 文化財管理局의 李浩官 學藝士·京畿道學務局 張昇澤 主事·江華郡 教育課長 李俊性氏 傳燈寺住持 鄭紀鳳氏等 諸位의 厚意에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 崔元銘青磁象嵌梅瓶

崔 淳 雨

「沙籠介」라는 黑象嵌記銘이 있는 粉靑流의 象嵌 蓮花文梅瓶 하나가 오래전부터 國立博物館에 收藏되어 있었다. 이 沙籠介란 記銘에 關해서는 그 意味를 밝히지 못하고 다만 「籠介」는 人名일 것이며 「沙」는 陶工이란 뜻이 아니겠느냐 ① 하는 程度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 이번 우연히 某 地方人士의 收藏品에서 거의 이와 같은 質의 粉靑流의 龍魚文梅瓶에 一面에는 「崔元」 一面에는 「籠介」라는 黑象嵌 記銘이 들어 있는 遺例가 發見되어 前者와 아울러 재미 있는 資料를 얻게 되었다.

이 「崔元」銘 梅瓶은 胴部둘레에 四瓜龍 두마리를 象嵌하고 各其이 龍頭앞에는 잉어로 보이는 물고기 한 마 리씩을 象嵌해서 마치 龍이 잉어를 잡 아먹으려는 듯한 態勢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諧謔味 있는 圖文을 이루고 있다. 瓶다리에는 等行三 重 白象嵌劃線아래

